



축복받은 공화국의 어머니들



지난 11월 16일 공화국에서 어머니날을 뜻있게 맞이하였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나라앞에 떳떳이 내세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 어디서나 뜨겁게 흘러넘쳤다.

어머니들이 온 집안, 아니 온 나라가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음지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조선녀성으로 태어난 남다른 긍지와 자부기가 비껴흘렀다. 어머니! 얼마나 친근하고 다정한 부름인가. 자식들을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은 어머니들이 사회앞에 지닌 의무이고 본분이다. 그러나 그 부름이 언제부터 그토록 아름답고 정답게 불리워지게 되었는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

귀여운 아기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고 자식의 운명도 지켜주지 못하였던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었다. 절세위인들의 마사로운 품속에서 공화국의 어머니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들

《홀러가는 하루하루가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이런 궁핍같은 보급자리에서 사는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세상에 돌도 없는 만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구슬다락-경루동의 호화주택에서

러가고있는것은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어머니들은 무관심과 차별, 학대와 폭력속에 시들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일할 능력을 가진 많은 녀성들이 생활난과 자녀보육때문에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

의 불행한 처지가 비껴있다.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범죄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생활난과 각종 학대로 인하여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녀성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되고있다.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아야 할 녀성들이 제도과 정치를 잘못 만났때에 인격과 존엄, 생존권을 강그리 짓밟히고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고있는것이 남조선녀성들의 비참한 모습이다.

어머니, 정녕 그 부름은 서로 같아도 이처럼 사회제도에 따라 펼쳐진 현실은 명암처럼 대조되고있다. 하기에 이 땅의 어머니들은 한복소리로 터친다.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품,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어머니들처럼 복받은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리은별

어머니, 그 부름은 서로 같아도

살고있는 허명금녀성이 한 말이다. 평범한 무죄도전차운전자인 그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같으면 특권층이나 쓰고살 호화로운 살림집의 주인이 되었으니 어찌 격정으로 가슴부풀지 않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다 영광과 행복의 상봉에 올라 복받은 삶을 누

기하고있다. 남조선녀성들속에서 《자식을 낳아키우기가 두렵다》,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말이 유행처럼 된지 오래다. 그 말속에는 취업과 생활 조건보장 등 모든 면에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결혼, 해산, 육아와 같은 초보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

고있다. 남조선녀성들속에서 《자식을 낳아키우기가 두렵다》,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말이 유행처럼 된지 오래다. 그 말속에는 취업과 생활 조건보장 등 모든 면에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결혼, 해산, 육아와 같은 초보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

고있다. 남조선녀성들속에서 《자식을 낳아키우기가 두렵다》,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말이 유행처럼 된지 오래다. 그 말속에는 취업과 생활 조건보장 등 모든 면에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결혼, 해산, 육아와 같은 초보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

고있다. 남조선녀성들속에서 《자식을 낳아키우기가 두렵다》,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말이 유행처럼 된지 오래다. 그 말속에는 취업과 생활 조건보장 등 모든 면에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결혼, 해산, 육아와 같은 초보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

고있다. 남조선녀성들속에서 《자식을 낳아키우기가 두렵다》,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말이 유행처럼 된지 오래다. 그 말속에는 취업과 생활 조건보장 등 모든 면에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결혼, 해산, 육아와 같은 초보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

고있다. 남조선녀성들속에서 《자식을 낳아키우기가 두렵다》,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말이 유행처럼 된지 오래다. 그 말속에는 취업과 생활 조건보장 등 모든 면에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결혼, 해산, 육아와 같은 초보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고 어머니들은 그 행복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뿌리가 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어머니들속에는 누가 보지않건 인민을 위한 성실한 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녀성들도 있고 한

생을 과학탐구의 길에 바쳐가는 녀성들도 있다.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정신세계를 지니고 장엄한 격벽기를 힘있게 떠벌어다니는 녀성들, 조국을 떠 만드는 믿음직한 고임들이 되고있는 훌륭한 어머니들을 《통일신보》가 만났다.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고 어머니들은 그 행복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뿌리가 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어머니들속에는 누가 보지않건 인민을 위한 성실한 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녀성들도 있고 한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고 어머니들은 그 행복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뿌리가 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어머니들속에는 누가 보지않건 인민을 위한 성실한 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녀성들도 있고 한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고 어머니들은 그 행복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뿌리가 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어머니들속에는 누가 보지않건 인민을 위한 성실한 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녀성들도 있고 한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고 어머니들은 그 행복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뿌리가 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어머니들속에는 누가 보지않건 인민을 위한 성실한 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녀성들도 있고 한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고 어머니들은 그 행복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뿌리가 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어머니들속에는 누가 보지않건 인민을 위한 성실한 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녀성들도 있고 한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고 어머니들은 그 행복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뿌리가 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어머니들속에는 누가 보지않건 인민을 위한 성실한 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녀성들도 있고 한

인민들에게 밝은 눈을 안겨주기 위해



송성희경리(왼쪽에서 두번째)

얼마전 우리가 평양교원대학부속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을 찾았을 때 평양안경상점의 송성희경리가 어린이들에게 안경교정을 해주고있었다. 《눈이 잘 보이나요?》 《네.》 《늘 함께 있으면서도 미처 몰랐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너도나도 찾아온 어머니들의 진심어린 인사에 송성희경리의 대답은 한마디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비해볼 때 자기들이 한 일은 한알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조건을 지어주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고 숙원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을 받들자면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소박하고 성실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총복으로 삶을 빛내이고있는 그의 인생길을 돌이켜보았다. 송성희경리는 지난 수십년 세월 시력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탐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쇠돌산을 앞에 놓고도 일자리를 폭죽 내지 못한다고 안타깝게 호소하는 한 광부를 위해 머나먼 북변 무산에까지 찾아가 이동봉사를 해주던 다심한 심정으로 그는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동봉사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 나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탐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강, 주수가 그의 봉

살이지에 계속 늘어났다. ... 인민들의 밝은 눈을 위해 서라면 그에게 해당 안되는 일, 상관없는 일이 따로 없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 헌신은 있을지언정 그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해줄기를 바라지 않는것이 그의 마음속진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인민들에게 밝은 눈을 안겨주기 위해 순

《을밀대》 제품에 깃든 탐과 열정

공화국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 마감건재들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평양건재공장에서 생산된 《을밀대》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제인가 공장서 디젤유에 의존하던 타일과 위생자기의 소성공정을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가스공급공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제기되었

결한 탐심을 바쳐가는 그의 소행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고 그의 가정은 대대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애국자가정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오늘도 그는 애국자가정이라고 높이 불러주시는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의 길을 즐기치게 이어가고있다.

에는 원료, 자체의 국산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조명옥 공업기술원장에게서 생산된 《을밀대》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제인가 공장서 디젤유에 의존하던 타일과 위생자기의 소성공정을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가스공급공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제기되었

을 때었다고 한다. 그때 조명옥소장은 연료계통을 우리 식으로 바꾸는것은 공장의 운명과 직결된 생활적인 문제이다. 그 어떤 난관이 조성된다고 해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고 하던 기술자, 기능공들과 지혜를 합쳐 연료공급의 국산화를 훌륭히 실현했다고 한다. 수입원료와 대용한 도자기 원료를 찾기 위해 나라의 방방곡곡 산방들을 무수히 오르내리며 끝끝내 수입여가치의 원료를 채취해냈을 때에도 너무 기뻐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한 것이다. 조명옥소장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할수 있다는 CNC가공에 의한 위생자기생산을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였다. 연구조를 못고 달라붙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으나 그는 주저않지 않았다. 한번 해서 안되면 열번, 스무번... 이렇게 곧 2년간에 걸친 고심참담한 노력 끝에 마침내 성공의 빛을 보고야말았다. 조명옥소장도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이 있는 평범한 녀성이다. 하지만 그는 가정보다 먼저 공장을 생각하고 나라에 보탬을 주는 일에 남먼저 뛰어들어 이악하게 노력하는 량심의 인간이며 참된 녀성과학자이다. 마감건재생산의 국산화와 생산공정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조명옥소장(왼쪽에서 첫번째)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여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을 앞드는 참된 어머니들 >>>

것으로 하여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그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시었다. 높은 실력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나라의 부강번영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그의 모



동정혜실장(오른쪽에서 첫번째)

공화국의 의학연구원에 처녀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30년세월 수십건의 가치있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나라의 의학발전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재능있는 녀성의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의 동정혜실장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연구소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댄 그는 생물공학기술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의학생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과학탐구의 길을 뜻뜻이 걸어왔다. 난치성질병들의 치료와 예

습에서 우리는 확신했다. 이런 참된 녀성과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공화국은 더욱 강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전인민적진군에서 끊임없는 기적이 창조되고있는것이라고.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을 위해 특별한 로동보호대책도

이밖에도 그는 어린이들의 키크기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제조합사탕장조르몬 주사약을 비롯한 의약품들을 생물공학방법으로 제조하여 청소년들과 난치성질병 환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한생 의학탐구의 길을 쉬임없이 걸어나 동정혜실장의 모습은 수수하고 소박하다. 하지만 동정혜실장의 삶은 지금껏 그가 받은 40여개의 과학기술증서들과 그가 연구한 효능높은 의약품, 예방약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고 생기와 활력에 넘쳐 생활하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과 더불어 빛나고있다. 지난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동정혜실장. 그는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연구성과들을 내놓는데만 있지 않습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 세계를 앞선나가자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인민들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제일중대사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는 오늘도 더 높은 연구실적을 이룩하기 위한 탐구의 주로를 변함없이 달리 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